



## 정토 꿈꾸는 청정지역 불심도 무진장!

전북 남원·무주  
진안·장수

**# 남원** 구산산문의 최초 가람지 지리산  
실상사(주지 종고)는 21세기 들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실상사는 '올바른 승가상의 확립'  
과 '승풍진작'을 내걸고 결사에 들어간 '선우도량'  
의 근본도량이 되면서 뉴스의 중심부로 부상했다.

이후 출·재가가 함께하는 공동체운동으로 귀농  
학교, 직영농장, 대안학교(작은학교) 등을 운영하며  
생태공동체를 실현해 가고 있다. 또한 '사한생명'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를 통해 정토세계 실현을 구  
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공동체의 일환으로 사  
하촌 산내면에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지역민을 위한  
건강사랑방, 스포츠댄스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  
농업인 센터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소외되기 쉬  
운 농촌의 여성과 어린이 복지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결성된 지리산생명평화결사는 종교와 이  
념을 떠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세상의 평  
화를 위해 생명평화탄발순례단(단장 도법)이 전국을  
순례중이다.

남원불교사암연합회장과 남원불교대학장을 맡아  
남원불교를 이끌고 있는 실상사 주지 종고 스님은  
"남원은 역사적으로 불교문화와 함께한 고장으로 시  
민과 불교가 될 수 없는 관계"라며 "시민이 참여하는  
불교문화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말한다.

지리산 실상사와 함께 남원시내에 자리한 선원사,  
대복사도 남원 불교의 중심에 있다.

남원시내의 선원사(주지 보관)는 근래 들어 남원불  
교대학과 함께 남원불교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연꽃유치원은 전북 동부지역 유일의 불교유치원  
으로 20여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특히 연꽃유치원이  
운영하고 있는 통학버스는 국내에 하나뿐인 '어린이  
전용버스'다. 연꽃유치원은 500여 평 넓은 부지에  
70여명의 어린이가 꿈을 키우고 있으나 지역인구가  
줄고 있어 신입생 모집률이 낮아 몸살을 앓는다.

선원사 담을 넘어 꾸민 불교서점 '깨달음'도 포교  
에 한몫을 한다. 깔끔하게 단장된 매장에는 불교서적  
은 물론 불교관련 팬시용품까지 전시해놓아 일반  
시민들의 발걸음도 멈추게 한다.

주지 보관 스님은 "지난해 추진하다가 무산된 불  
교회관 건립을 위해 다시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불교의 숙원사업인 불교회관은 종파를 초월  
한 불교문화공간으로 108평 규모에 불교대학은 물  
론 각종 신학단체가 상주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회, 청년회를 주축으  
로 남원불교를 이끌었던 대복사(주지 혜건)는 최근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다. 지난 6월 부임한 신입주  
지 혜건 스님은 중단된 청년회를 우선적으로 재결성  
하고, 내년부터 학생회를 다시 살린다는 것이다.

또한 폐쇄된 대복사 불교회관을 수리해 차와 예절  
을 교육하는 문화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복사는 11월 25일부터 3개월 과정의 '차문화 강  
좌'를 개설했다.

지역 사람들의 활동과 함께 남원불교대학의 역할  
도 눈에 띈다. 1993년, 실상사 도법 스님을 주축으로  
남원불교대학이 개설되면서 남원은 사찰불교에서  
대중불교로 포교의 폭을 넓혔다.

남원불교대학의 운영 또한 눈여겨볼만하다. 종파  
를 초월해 스님들로 구성된 지도이사회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재가자로 구성된 집행위원회가 운영을 맡  
고 있다. 이처럼 승·속이 재정과 운영을 분리해 역

전북의 동부 산악지역을 일컬어 통칭 '무진장'이라 부른다. 무주 진안  
장수의 첫 글자를 따서 부르는 명칭이다. 오지와 다름없던 이 지역은 근래  
들어 청정지역으로 각광 받으며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도로가 개설되고  
교통수단이 발달되면서 사람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상주인구가 늘어나  
기보다 대부분 '왔다가'는 유동인구이다. 갈수록 농촌의 공동화는 심화되  
고 그나마 남아있는 이들은 노인뿐이다.

이런 시대 흐름 속에 농촌지역인 남원과 '무진장' 불교계도 절대절명의



남원지역 불교는 승·속이 재정과 운영 등 역할분담으로 지역불교발전을 꾀한다. 매년 연  
합 체육대회를 통해 불자들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있다.

위기에 처해있다. 어린이법회를 찾아보기 힘들고, 중·고 학생회는 아예  
사라져 회생의 기력마저 없다. 청년회도 그러하고 이름뿐인 신도회는 활  
동이 정지된 지 오래다. 사찰에서 이뤄지는 법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음력 초하루, 보름법회가 겨우 명맥을 잇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 지역에 불법(佛法)이 중단될 것이라  
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려울수록 더욱 빛을 발했던 것이 호남불교였기  
때문이다. 전북 동부지역 불교계의 포교를 위한 고군분투는 그대로가 수  
행이며 정진이다.



다양한 생태 공동체운동을 펼치고 있는 실상사는 지난해 지리산 생명평화결사 출범과 함  
께 생명과 평화의 성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 남원 실상사 지역민과 함께 공동체 활동

### 무주 안국사·백련사 '배움과 실천' 이끌어

### 진안 금당사·탐사 복지·장학사업 등 주목

### 장수 창건사찰 늘어나며 불심도 '용트림'

활을 분담함에 따라 불교세가 열약한 남원에서 14기  
에 걸쳐 400여 명의 학인을 배출하게 됐다.

남원불교대학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갈로회(포  
교사단), 심우회(회장 양만진·50대이상 거사모임),  
불인회(회장 이동희·40대 불교인모임) 등의 신행단  
체가 출범했고, 남원불교신학회(회장 김광석), 불교  
대학 학생회와 함께 남원불교신행단체 연합회(회장  
이정섭)가 결성돼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남원불교대학 부학장 도문 스님(연화사 주  
지)은 태고종을 중심으로 지역불교 화합과 각종 불  
교행사의 일선에서 뛰고 있으며, 인월 영선사 주지  
월광 스님은 인터넷상에서 '남원불교(http://cafe.  
daum.net/nbulgyo)'를 운영하며 온라인 포교를 선  
도하고 있다.

### # 무주·진안·장수 인구 2만 7000여명의

무주는 10여개 사찰이 어렵게 포교에 임하고 있다.  
그나마 구천동 백련사, 적상산 안국사가 청정지역 반  
딿불 서식으로 알려지면서 관광객들로 명맥을 이어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마다 농촌 인구는 줄어  
들고 노인들만 남아, 교통이 불편한 산중사찰을 찾기  
에는 여부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회는 물론 신행  
단체의 움직임이 전무하다.

적상산 안국사(주지 원행)는 1995년 무주양수발전  
소 건립으로 수몰되고 호국사터로 이전해 오늘의 모  
습으로 복원됐다. 해발 1000m가 넘는 위치에 자리  
해 있지만 버스가 경내까지 진입할 수 있어 외지 참  
배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터 '나눔의 집' 원  
장을 겸하고 있는 주지 원행 스님은 안국사 진입로  
조입에 노인 요양시설 '적상원 무우수마루'를 설립  
하고 개원을 앞두고 있다. 스님은 또한 무주불교 활  
성화를 위해 지난해 무주불교대학을 개설했다.

1년 과정인 무주불교대학은 1기 50여명이 졸업하  
고, 75명의 학인이 재학 중이다. 소설가이자 시인인  
전선자 씨가 무주불교대학 동문회장을 맡아 지역불  
자들을 엮어가고 있다.

백련사(주지 계현)가 자리한 구천동은 조선 시대  
유학에 밀려 숨어든 스님들이 둔을 치고 정진하던  
골짜기로 그대위가 불교성지이다. 워낙 깊은 오지이  
어서 자체 신도는 거의 없고 수행자와 관광객이 대부  
분이다. 깊은 골짜기 끝에 자리한 백련사는 10여개  
의 전각이 대가람을 이루고 있어 옛 구천 명의 스님  
들이 다시 사는 듯 하다. 백련사는 관광객과 등산객  
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서포교를 기획하고 있다.

진안지역 불교도 상황이 무주와 별반 다르지 않다.  
마이산에 자리한 금당사, 탐사가 지역불교발전을 위  
해 힘쓰고 있는 편이다.

금당사(주지 성호)는 최근 대대적인 불사중이다.

나용 선사(주지)가 오도한 고급당 복원과 금당사 도량정비  
등으로 성역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5월마다 열리는  
진안장날에는 노인들을 위해 무료급식센터를 운영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복지사업 일환으로 금당사에  
무료요양원을 세웠다. 성호 스님은 지난해 나용장학  
회를 만들어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54명의 청소년  
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한국의 불가사의 중 하나인 만불탑이 있는 탐사(주  
지 혜명)도 대사회사업에 힘쓰고 있다. 15년 전  
발족한 '갑룡장학회'는 지난해까지 매년 1000만원  
의 장학금을 진안지역 불우청소년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 장학회는 탐사 만불탑을 세운 이강룡 할아버  
지를 추모해 장순자 혜명 스님이 설립했다.

혜명 스님은 "평소 조부님을 나보다 남을 위하고,  
봉사하며 베풀고 살라했다"고 회고한다. 1993년 혜  
명 스님은 2년여에 걸쳐 전북지역 사암을 직접 답사  
하고 사비로 <전북불교연감>을 편찬해 전국 도서관  
과 일반에 보급했다.

1969년, 법륜 스님이 장수 팔성사에 왔을 때만 해도  
초막법당 한 채였다. 1km에 걸친 진입로는 발두  
렁이었고 신도들은 1년에 한두번 찾을 정도였다. 그  
랬던 사람이 30여년만에 극락전을 비롯한 전각과 요  
사체에 '성적선원'까지 갖춘 대가람으로 일신했다.  
깊은 산중의 사찰이 이렇게 변하기까지의 흐름자체  
가 오늘의 장수불교 역사라 할만하다. 그도 그럴 것  
이 당시만 해도 장수지역에 팔성사 이외에 유력 사  
찰이 없어 모든 일을 외롭게 해야만 했다.

이제 팔성사는 산사체현관 건립을 준비중이다. 여  
름에도 모기, 파리가 없는 고산지대이기에 주말참선,  
108참회, 산중농사체험 등의 수련회를 통해 사찰과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고자 한다.

장계 성관사는 10년전 전국의 제방 선원에서 정진  
하던 월성 스님이 주석하면서 도량이 크게 변모하고  
있다. 스님은 도량정비뿐 아니라 대가람선원을 열어 사  
시사철 눈부른 남자들을 제정하고 있다.

장수 변암 용성 스님 탄생지는 장수군과 도문 스님  
의 원력으로 성역화 사업이 펼쳐지고 있으며 내년  
봄 죽림정사의 전체불사가 회향된다.

남원·무주·진안·장수=이준엽 기자

###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황성 스님  
장계 성관사 조실



계현 스님  
무주 백련사 주지



도법 스님  
생명평화탄발순례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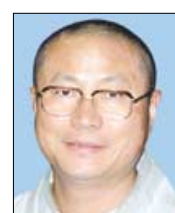
원행 스님  
무주 안국사 주지



종고 스님  
남원 실상사 주지



도문 스님  
남원 연화사 주지



성호 스님  
진안 금당사 주지



혜명 스님  
진안 탐사 주지



보관 스님  
남원 선원사 주지



법륜 스님  
장수 팔성사 주지



혜건 스님  
남원 대복사 주지



이정석  
남원신행단체연합회장



전선자  
무주불교대학 동문회장



이경재  
실상사 작은학교 대표교사

### ■ 인터뷰 / 용성조사 성역화봉사 추진 도문 스님

### “민족성지를 건립합니다”

“복과 지혜있는 이들이 머물 수 있도록 용성조  
사 탄생지에 죽림정사를 건립했습니다”

장수군 변암면 용성 스님 생가터에 죽림정사를  
건립한 도문 스님(사진)은 “사찰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민족정기를 제정하고 교육하는 민족성지  
로 전 국민이 참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200여년전, 이서구(李書九) 전라감사가 초도순  
시중, 이곳 장수 죽림촌에서 나라를 구할 인재를  
나오며, 이곳에 지혜와 복덕을 갖춘 도인이 머물  
러야 나라가 부흥한다고 예언했다. 100년 후 백  
용성 스님이 태어났고, 또다시 100년만에 죽림정  
사가 건립되어 도인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998년부터 시작된 ‘백용성 조사 탄생성

지 성역화봉사’는  
장수군을 비롯해  
지역민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추진됐  
다. 그리고 지난달 108평 규모의 용성교육관이  
준공되면서 성지의 모습이 드러났다. 특히 기념  
관은 도문 스님이 보관하고 있던 용성 스님 유품  
400여점과 용성 스님의 행자가 소개되어 벌써부터  
참배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도문 스님은 “내년 5월, 용성 스님 탄생 141주  
기를 기념해 죽림정사 불사 회향법회를 갖고 큰  
스님의 독립운동정신을 살려 민족정신을 함양하  
는 교육관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 주목! 실상사 작은학교

### “학교 작아도 가르침은 커요”

### 2001년 문 열어 올해 첫 졸업생 배출

밭도 많고 탈도 많은 한국 교육계. 새로운 대안  
으로 떠오르는 것이 대안학교이고, 실상사 작은  
학교는 불교계 유일의 중학교정 대안학교이다.  
2001년 처음 문을 열어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했  
다. 외형적으로는 교사 10명에 학생이 학년당 15  
명 이내로 미니학교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어느 곳에서도 따라할  
수 없는 큰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뤄진다. 8개의 작은 가  
정에서 학생과 교사가 함께 생활한다. 서로 돌아  
가며 식단을 마련하고 자신의 할래는 직접 한다.  
학교에서도 일반학교보다도 휴과 나무 등 자연을 이

용한 체험교육시간이 더 많다.  
교육의 대부분이 불교적 가치관  
을 익히고 살아가도록 하는 ‘세  
상보기’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지리산 깊은 산중의 작  
은학교이건만 지원자가 많다. 내  
년 신입생모집에 벌써 전국에서  
40명 가까운 지원자가 몰렸다.

최근 실상사 작은학교는 새로운 변신을 모색하  
고 있다. 학사마련이다. 컨테이너 3개동으로 이뤄  
진 학사를 생태학사로 바꾸려 한다.  
작은학교 이경재 대표교사는 말한다.



컨테이너 3개동으로 이뤄진 실상사 작은학교 정경.

“법당을 건립하고 원불을 모시는 불사도 좋으나  
인재불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민족과 중생  
을 이끌고 불교를 짊어지고 나갈 동량을 키우는  
불사에 힘을 모아주세요.”

(063)636-3369 www.jakeun.org